



## 희생에 대하여

(빌립보서 2:1~1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행이나 하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총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자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을 당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 값으로 인해 희생을 당해 주셨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라 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가 다 예언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돌아가셨습니다.

이것까지 현실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고 하십니다.

지음을 받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만민들은 이제 말한 대로 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는 원래 아주 큰 고목, 아주 큰 나무이었습니다. 알차게 속이 꽉 들어찬 큰 나무인데 이것을 사람이 도끼로 패든지 베어서 죽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 나무가 희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 나무가 희생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제 명대로 살다가 절로 죽은 나무는 재목이 됩니다. 대패를 밀어도 곱게 대패 발을 받지 않습니다. 고목이 되어 죽은 나무는 재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이 꽉 찬 나무는 아주 좋은 재목이 됩니다. 판자를 만들어도, 기둥을 세워도, 들보를 만들어도 아주 좋은 재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은 3·1운동을 잘 모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인 제 나이 16살 때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여 이름난 사람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일본 현병들에게 붙잡혀

가서 아무 말없이 죽은 사람들과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독립을 해야지! 우리 나라도 독립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컷 농사지어서 일본 사람들 쌀밥 먹여주고, 우리는 조밥 먹고 보리밥 먹었습니다. 바다에 고기도 좋은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먹고, 목화를 심어 누에를 모아 재배하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져갔습니다. 마치 한국은 일본에게 죽도록 종노릇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화를 심어서 팔 곳이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 일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니 좋은 것 아니냐? 강목을 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좋은 옷 입도록 해주니 고마운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편 우국지사들은 3·1운동 때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외국으로 망명해서 한국으로 돌아 올 수도 없고, 들어 왔다가 붙들리면 죽임을 당하니, 이리 저리 옮겨 다니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독립 운동하겠다고 만세 부르다가 현병이 탄 말에 짓밟히고 잡혀서 옥에 갔다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독립운동 당시 제 나이 18살이었는데, 제가 직접 목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부산 방송국에서 해방 소감을 좀 말해달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한국 민족이 살게 된 사건이라 말했습니다. 말도 일본 말로,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면서 전부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 민족이 없어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해방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해방되어 한국 민족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살게 된 사건이라 말했습니다. 제가 신사참배문제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판검사가 옥에 찾아와 재판국을 설치하고 사흘 동안 저를

권면 했습니다. 일본 기독교를 건설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인도에서 건너 온 불교를 일본식 불교로 바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일본식 기독교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신사 참배를 시작한 것이 이를 위한 첫번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아마데라스 오호미가미’는 ‘천조대신’으로 일본 최초의 왕, 즉 일본 천왕은 신이 사람이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껴서 일본의 신이 첫 왕으로 태어난 개념인 천조대신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일본의 기독교에 근본을 만들려 하였습니다. 일본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 일이 이제는 다 깨어지고 없어졌으니, 그 때 우리의 소감은 ‘한국 교회가 살았다’였습니다. “첫째, 한국 민족이 살았다. 둘째, 우리 교회가 살았다. 교회가 이제는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성경 그대로의 종교가 될 수 있으니 이제는 기독교가 살았다.” 이런 소감을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해방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3·1 운동을 기억하여 나라를 다른 나라에 빼앗겨 국가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 가서 죽었던 것을 포함해서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고 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할까요? 간략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내용을 창조의 원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 믿는 사람들도 국가와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합니까?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뜻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의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위해서 만일 죽어야 한다면 옛 사도들과 옛 기독교 선진들은 모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음 받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경우에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생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사람의 희생은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하늘의 생명이 땅 위에서 희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의 가슴에 하늘의 생명을 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가 희생을 해서 판자도 되고 기둥도 되는 것도 이해되고, 소를 희생해서 고기를 얻게 되는 것도 이해되고, 사람이 희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사람의 정신이 필요 한 것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상동 목사를 잘 아십니다.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고집쟁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현실에서 살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생명이 땅 위에 온 것을 누가 알며, 하늘의 생명이 땅 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되어짐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현실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현실 문제도 아닌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하니,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마 청년들은 똑똑해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현실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줄 때에 “아브라함아 내년 이 때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실 문제입니다. 100세나 된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아브라함 부인도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이가 얼마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까? 참 노망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부인이 장막 뒤에서 웃고 있다.” 아마 그때 제 생각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안 웃었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이것이 바로 현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듬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 당대에는 그것을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못 봤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일들이 후대에 그 약속 그대로 그의 자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배우고, 현실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현실 문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도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이사야 14:7에 분명코 예언했고, 그 예언의 약속대로 현실 문제에 있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 났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 되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까지 현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현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 나라가 보여야지 하늘 나라가 예비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 문제가 아닌 하늘 나라에 대해 약속하고 예언하신 것은 현실 문제가 아닌 하늘 나라를 믿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저 유황불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지옥 불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이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지옥이 없을 줄 아십니까? 그런고로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구약 공부가 필요합니다. 정말 약속대로 이루어졌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아들을 주셨는가? 기나안 7족속을 멸하고 큰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루어졌는가? 그 외에도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저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 해놓은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1~3). 분명코 약속하셨습니다. 분명코 예언 하셨습니다. 다른 약속과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약속과 이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분명코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심하고 저 하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고 한상동 목사 설교집 테이프 중 1집 -